

여순사건 한눈에...홍보관 문 열었다

발생 배경·진상규명 노력 전시
전문가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여순10·19사건 홍보관’이 지난 18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10·19사건 홍보관은 여순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 하기 위해 사건 발생지인 신월동 제14연대 주둔지 에 총사업비 5억83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219㎡ (66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홍보관은 여순10·19사건 홍보관은 향후 추진될 여순10·19사건 평화공원 및 평화재단 유지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여순사건의 발생 배경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학습실’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에는 여순사건 당시를 그림으로 재현한 지역작가들의 그림 10여점, 당시 군인들을 따라다 니며 취재했던 국내 기자들이 현장을 직접 찍은 사진 30여점이 전시돼 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의 목격담과 들었던 내용을 글로 써놓은 증언록과 추모 사업·유적지 관련 영상들도 선보이고 있다. 이밖



여순10·19사건 홍보관'이 지난 18일 신월동 제14연대 주둔지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

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까지 지역사회가 노력 해 온 과정과 여순사건 관련 6개 시·군(여수·순천·광양시·고흥·보성·구례군)의 유적지를 찾아볼 수 있는 키오스크 등이 설치돼 있다.

전시실에는 여순사건 전문 해설사가 상주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방문객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도 울 예정이다.

학습실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장비 등이 설치돼 있으며, 단체관람객 대상 관련 영상

상영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기명 시장은 “홍보관은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여순10·19사건 평화공원 유 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여수시 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10·19사건 홍보관은 매 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 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민 10명 중 8명 이상 “군정 만족”

코리아정보리서치 1010명 조사
가장 잘하는 분야는 ‘군민 소통’

고흥군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군정 운영에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 기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고흥군민 1010명을 대상으로 군정 만족도 여론조사를 지난 6일부터 5일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민선 8기 고흥군이 군정을 잘 운 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 정 평가가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85.1%로, 높은 군정 만족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85.4%, 여성은 84.8%가 긍정 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87.7%), 40대 (78.5%), 30대 이하(75.3%), 50대(74.2%) 순 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고흥군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군민 소통'이 1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우주항공' (14.5%), '주민복 지' (13.3%), '지역경제 활성화' (11.4%) 순으로 조사됐다. 군민이 평가한 주요 군정 정책별 만족도에서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드론 택시 관광 상품화 등 '우주항공 정책'이 85.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82.3%), 관광 (80.6%), 정주기반 확충

(78.7%), 문화예술·체육 육성 (78.0%), 주민복 지 (77.5%) 순으로 나타났다.

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이유는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 등 고흥군 3대 미래전략산 업과 광주~고흥 고속도로와 우주선 철도, 고흥~봉 래 국도 15호선 확·포장 등 3대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한 점과 2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 1 억 달러 달성, 권역별 주거단지 조성 등 정주기반 확충,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전 군 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 강화도 높은 만족도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나해에 이어 군민들이 높은 군정 만족도를 보여주시는 것은 군민 통합과 군민 행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흥의 변화 발 전을 위해 민선 8기 고흥군이 노력해 온 점에 대 해 감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는 책임행정과 함께 민선 8기 비전인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 면접조사 와 자동응답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용강도서관 ‘뽕뽕 문학 오락실’ 이벤트

내일 현장 선착순 30명 대상 진행

광양용강도서관이 오는 21일 오후 1시, 도서관 2 층 종합자료실 내 ‘작가의 방’에서 문학과 오락을 접 목한 체험형 행사 ‘뽕뽕 문학 오락실’을 운영한다.

‘뽕뽕 문학 오락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 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국민체육진흥공 단이 후원하는 ‘2025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사다.

광양용강도서관은 문학을 새로운 놀이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상주작가인 최난영 작가 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문학을 놀 이 요소와 결합해 독서나 도서관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문학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참여자들과 작가와 함께 문학 미션을 수행한 뒤, 획득한 ‘오락실 이용권’으로 간단한 게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전 신청 없이 당 일 현장에서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7월에는 작가의 방에서 ‘용강 고물상 (古物想)’이라는 주제로 감성형 문학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과 그에 얽힌 사 연을 시민들이 함께 전시하고 교환하며, 서로의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는 문학적 소통의 장으로 운 영될 계획이다.

한편, 광양용강도서관은 매월 ‘작가의 방’을 통 해 다양한 테마의 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상주작가 여는 날’과 연계해 공간을 ‘카페’ 콘셉트로 꾸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 응을 얻은 바 있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매달 변화하는 ‘작가의 방’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시민과 문 학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 다”며 “앞으로도 일상 가까이에서 문학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작가의 방’ 이벤트에 대해 궁금한 점 은 용강도서관(061-797-3859)으로 문의하면 된 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향동 벽화골목의 유생 벽화.

순천 향동 서문성터길 벽화골목 들어섰다

향교·옥천서원·유생 등 벽화
마을 분위기 밝히고 관광 새 명소

순천시 향동에 벽화골목이 탄생했다.

향동 벽화골목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서문 안내소 뒷길 서문성터길에 향동의 대표 이미지 인 향교와 옥천서원, 유생 등을 주제로 한 벽화 로 조성됐다.

서문성터길 벽화의 첫 부분에는 사랑스러운 남자와 유생 모습의 입체 사인물로 구성하고, 익살스러운 선비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 놓아 다채롭고 동적인 포토존을 조성했다.

또한 벽화 마지막 부분은 금수강산 이미지에 태양열 조명의 보름달을 형상화해 정적인 포토 존을 마련함은 물론 주민들의 야간 보행 환경도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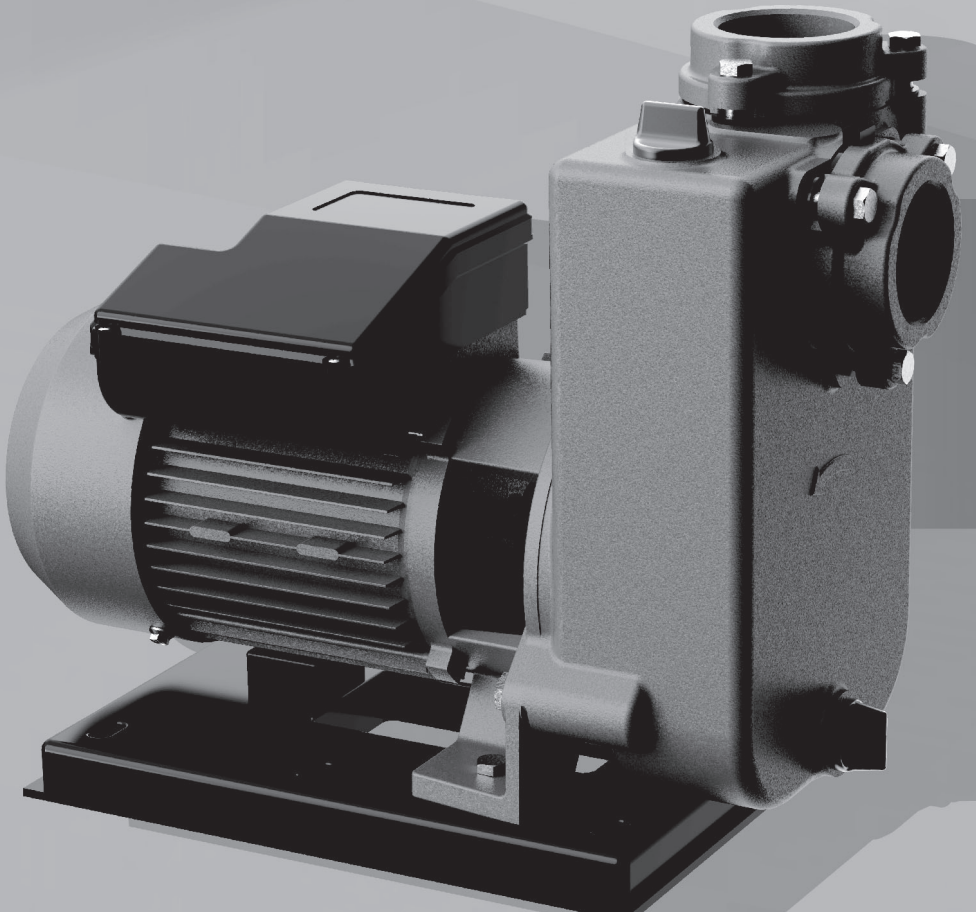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이번 벽화사업은 향동의 올해 주민참여예산 으로 추진됐으며, 초기 사업 제안부터 대상지 선정과 디자인 협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주민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서문성터 길에 다양한 포토존을 형성해 자부심이 든다”며 “밝아진 골목길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된 서문성터길 벽화는 ‘벽화마을 일번지’로 불리는 향동의 품격을 더하고, 주민 과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향동에는 서문성터길 벽화 외에도 청수 골 달빛마을 (공마당2길 38) 등 6개소 곳곳에 특 색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